

만남

10

2018

통권 537호

특별기획 | 일상에서 제자답게

특 집 | 거룩한 공회와 현대 문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고백을 담은 김인숙 성도(성동·광진교구) 작품

올해 여름 11주간에 걸쳐, 그 뜨겁던 기후를 훌쩍 넘어선 영락 교우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서
‘제자’를 주제로 김운성 위임목사의 설교말씀이 선포됐다.
십자가를 본당 스테인드글라스로 형상화하고, 중심에 예수와 12제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허다
한 무리를 배치한 위 작품은 설교말씀에 대한 성도의 화답이다.

만남

2018년 10월호 통권 537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10.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차
례

이달의 말씀 02 · 고속도로를 달리는 마음으로! | 김운성

특별기획 04 · '예루살렘 성지 갈 때, 잠깐 머무는 곳', 기독호스피스
일상에서 제자답게 | 김희정, 박근우, 조덕일

특집 거룩한 공회와 현대 문화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1 · 거룩한 공교회와 소그룹 문화 | 김충섭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4 · SNS와 신앙 ② | 남정열



한 권의 묵상 17 ·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읽고 나서 | 장병건

여름수련회 소식 3 20 ·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세계선교 29 · 세계를 향한 선교, 영락교회 네필 예배 | 라이



문화광장 32 · 성경적 문화콘텐츠의 전망을 넓히다 | 박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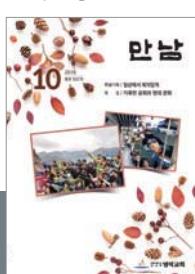
37 · 10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38 · 하나님과 대화하기 – 영락기도원을 찾아서 | 박현옥
42 · 가을밤 하늘찬송 | 유승현



이웃사랑 45 · 작은 자의 크신 하나님 | 최미혜

표지설명



중등부 학생들이
'백두산 천지 앞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고,
동북아대륙을 품으며
'백두산에서 통화까지'
야간 침대 열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교회소식 49 · 개강소식

50 ·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52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포이메네스 영성수련

54 · 특별새벽기도회 등

60 · 유아세례 축하 / 새가족 환영

62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야곱의 우물가 63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4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주사위 게임

화보 65 · 진중세례식 이모저모

고속도로를 달리는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멀리 부산쯤 되는 곳에 가는 여행과 닮았습니다.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노라면 다양한 차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하행선을 달리는 자동차들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하행선에서 마주 오는 차는 없습니다. 역주행은 정말 위험하지요. 혹시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는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란 고속도로에서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역주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요람에서 출발하여 무덤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처음엔 없던 차들이 함께 달리게 됩니다. 수원, 오산, 대전 등 여러 도시에서 출발한 크고 작은 다양한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로 올라와 우리 곁을 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곳에서 지선으로 내려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출발한 차가 동탄으로, 옥천으로, 대구로 갈라집니다. ‘그 차 정말 참하게 달리네. 좀 더 오래 함께 달렸으면!’하고 생각하지만, 그 차의 목적지는



김운성 위임목사

그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차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차들과 나란히 함께 달리다가 헤어지곤 합니다. 고속도로에도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속도로 위에 한 대의 차도 없다면 어떨까요? 속도를 높이며 마음껏 달려 기분을 한껏 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단 한 대의 차도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쯤 이르기까지 홀로 달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들린 휴게소에서도 단 한 대의 차도 볼 수 없다면, 그 휴게소마저 문을 닫아서 단 한 명의 직원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고속도로를 홀로 차지한 기쁨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휴게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을 달리는 차들은 모두 귀합니다. 그들은 세상이란 고속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만나는 동행입니다. 개중에는 지나치게 빨리 달려 스쳐 지나가서 우리를 움찔 놀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앞을 가로막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함께 빠름을 경쟁하거나, 클랙슨을 울려 앞차를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조금 달리다 보면 차례로 우리 곁을 떠나갈 텐데, 괜히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두어 시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달린 자동차들이나 우리보다 두어 시간 늦게 출발하는 자동차들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차들과 추돌 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추돌 사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생기게 되는 감정과 의견 충돌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들,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치명상을 입습니다.

추돌 사고를 내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양보 운전을 하면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양보 운전이 중요하지요. 중간에 끼워 주기도 하고, 천천히 달려 추월을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 그리 해 주면 고맙다고 표시도 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 차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 하길 축복해 주면서 말입니다.

요즘 목사인 제가 달리는 도로 위에는 차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락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달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서울에

온 후로 이런저런 일로 제 삶에 새로 들어온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열쇠를 빼고 기분 좋게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요람을 출발하여 무덤으로 달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목적지가 무덤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위해 준비된 휴게소입니다. 쉬기도 하고, 주유하기도 합니다. 식사나 간식을 먹어 힘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영락휴게소가 인기가 있어서 지나가던 자동차로 모두 채워져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이들은 휴게소에 들리지 않고 무리하게 달립니다. 휴게소를 쳐다볼 새 없이 달리는 과속, 쉬지도 않고 달리는 과욕은 치명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시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나란히 차를 대고 서로 바라보기도 하며 쉼을 얻고, 먹으면서 보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소떡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영락휴게소에서 쉬고 보충하여 천국이란 목적지까지 달릴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자신의 차에 문제가 없는지 엔진부터 잘 점검하기 원합니다. **만남**

일상에서 제자답게

‘예루살렘 성지 갈 때, 잠깐 머무는 곳’, 기독호스피스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방법’

‘교회생활을 넘어 세상과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체험’

이달엔 영락 기독호스피스인들에게 들어본다. 세상 속에서 특히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한국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체험을 들어본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봉사를 넘어서서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봉사와 섬김을 세상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봉사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진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임에도 틀림이 없다.

취재 김희정 객원기자 사회 박근우 객원기자 사진 조덕일 객원기자



왼쪽부터 김경진 집사, 문경숙 권사, 김정훈 장로, 계훈찬 안수집사, 최옥분 권사, 박근우 집사

호스피스 봉사의 시작



사회 박근우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 반갑습니다. 많은
봉사 중에 호스피
스 봉사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최옥분 권사(서대문·은평교구):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집에서 병간호해야 했는데 그때 유교 집 안에서 자라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시어머님께 복음 전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 딸이 대학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권유한 저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서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김경진 집사(인천교구, 의료선교부 호스피스팀 총무) : 1997년도부터 교통사고를 크게 세번 당했습니다. 2000년에 미국에 가서 네일(nail) 서비스를 배우고, 2006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규모가 작은 장애 시설에서 봉사하다 계훈찬 집사님 권유로 호스피스 봉사를 알게 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 내가 계속 살아야 할 뭔가 있구나'를 느끼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문경숙 권사(강남교구, 의료선교부 호스피스팀장) : 저는 호스피스 1기로 교육받았습니다.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하신 '원주희 목사님'을 알게 되면

서 호스피스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됐어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누워계신 어머님을 돌보면서 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종로·성북교구): 평상시 좋아하던 장로님이 편찮으셨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한 이후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 소천하신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를 접하고 죽음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후에 강의를 통해 환자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갈 때, 잠깐 머무는 곳', 기독호스피스

사회 :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호스피스의 개념과 영락교회의 '호스피스 운영'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장로(종로·성북교구, 의료선교부부장) : 호스피스의 어원은 중세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할 때 '잠깐 머무는 곳', 즉 '여관'에서 유래합니다. 순례하다가 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기도 하면서 호스피스의 어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6년 의료선교부에 호스피스가 합류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했으며, 올해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사회 : 봉사자님들의 봉사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김경진 집사 : 저는 2007년부터 봉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1,000시간을 넘었고, 요즘은 기록하지 않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옥분 권사 : 저도 500시간을 넘겼고, 마찬가지로 기록하지 않은 지 좀 됐습니다.

문경숙 권사 : 저는 2001년도에 1기 수료하고 5년하고는 못 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저는 관리 차원에서 기록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4,100시간 정도 되었고, 70세 전까지

5,000시간이 목표였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자는 채찍의 방편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봉사하며 있었던 에피소드

사회 : 봉사하던 중의 다양한 에피소드 들을 수 있을까요?

계훈찬 안수집사 : 저보다 3년 연상인 어떤 환우분이었어요. 나이를 물더니 대뜸 “동생이구먼”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동생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형님 두렵지 않으세요?” 했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입원하신 동안 어땠셨어요?” 했더니 “아주 편해 고마워~” 하셨습니다. 또 전도사님이셨던 여자 환우 분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했더니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하셨습니다. 그분이 2주 후 임종실에 들어간 뒤 고통 속에 소리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정되시는 걸 봤습니다.



최옥분 권사 : 4~5년 전에 짧게 만났던 환우인데 심란한 얼굴로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망설이다 “보고 계시는 창밖의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

님이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서 말문을 열고 말씀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하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었나봐요. 다음날 그 환우의 딸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방문하니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던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경진 집사 :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아요.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세 번의 자궁암 발병 후, 하반신

불구로 인해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부었습니다. 그분 어머니께서 찾아와 딸의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자 봉사자가 마사지를 해서 좋아지는 걸 보셨던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한 번 더 했지만 다음 주에 가니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문경숙 권사 : 저는 2001년도 처음 만난 30대 후반 여자분과 그 이후 만난 분이요.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실명하셨더라고요. 주변에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젊은 여자분인데 온몸에 욕창이 생겨 머리뼈까지 보였어요, 망설이다 시간을 놓쳐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음에 다른 분을 만나게 됐을 때 방법을 바꿨어요. 환우를 돌보며 찬송가를 많이 불러 드렸어요. “하나님 손 꼭 잡고 천국 가셔야 하니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니까 끄덕끄덕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갔을 때 그분이 안계셨어요. 주님을 영접하시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독호스피스인의 마음가짐

사회 :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김정훈 장로 : 의료선교부 내에는 많은 부서가 있어요. 의료, 간호, 약무, 호스피스, 지원팀 등 그중 특별히 호스피스팀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최선

을 다하고 있죠.

최옥분 권사 : 봉사보다 ‘제가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제가 갈 때는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있지만 오히려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들이나 저나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부르실 수도 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늘 배웁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봉사가 육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믿는 분에게는 죽음에 대한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환우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숙 권사 : 젊었을 때 두려웠던 마음과 달리 이제는 나이도 들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 저의 손길이 그들에게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경진 집사 :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웃지 못 할 해프닝

사회 : 봉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나요?

최옥분 권사 : 봉사를 가기 전에 환자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받습니다. 최근에 만난 남자 환우는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이혼한 노숙자였어요. 딱하고 불쌍해서 얘기를 잘 들어줬죠. 복음을 전했는

데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딸과 아내와 화해라도 시켜 드리려고, 누구의 방문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니 ‘저’라는 거예요(일동 웃음).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예수님 영접도 엉뚱한 생각인가 싶어 한동안 발을 끊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안 돌아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다가갔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고백하면서 풀라고요. 제가 하기 봉사를 다녀오니, 그분이 세례를 받고 차분해졌지만 암이 뇌로 전이돼서 말을 못 하게 됐어요. 딸과 부인이 와서 그분이 회개했다고 좋아하면서 푸는 걸 봤어요.

계훈찬 안수집사 : 봉사를 가서 발 마사지를 해드릴 때 얼마냐고 묻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공짜입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받아 보시라고 하는데 받고 나면 제 단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길어야 한 달 동안 제 단골일 뿐입니다. 짧게 만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죠.

품위 있는 삶의 마지막

사회 : 봉사를 하시며 많은 죽음을 접하셨겠습니까. 죽음을 보시며 각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진 집사 : 호스피스 봉사를 가서 우연히 청년부 자매를 만났는데 남편이 3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가면 시신을 닦아서 옷 입히는 봉사도 했어요. 그 자매의 남편도 제가

정성으로 닦아줬어요. ‘이 일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봉사구나,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살아 있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구나’ 하며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오늘은 지난 날의 끝날, 다가올 날의 첫날이다, 오늘이 그 누군가가 절실하게 살고 싶어 했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는 다짐과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적으로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현장에서 느끼는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옥분 권사 : 어제까지 대화했던 분이 다음에 가보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갈까’ 하는 걸 느끼죠. 현장에서 환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저는 저희 시어머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 영접하고 잘 가셨다는 생각이죠.

문경숙 권사 : 말기 암 환자들은 마지막에 센 진통제를 써도 듣지 않아서 괴롭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품위 있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해요. 환우들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감동합니다. 저는



1



2



4



3

1 복음 증거의 섬김을 통해 개종하여 세례 받는 모습 2 호스피스 심화교육을 마치고 3 환우분과 나들이 모습 4 환우 분 발마사지 모습

그분들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종말론적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야 할까, 내 믿음 생활
 은 어떻게 할까’를요. 이전에 봉사갔던 요양소에
 서 목욕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 여자 봉사자가 남
 자 환우 분을 씻겨드릴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환우 분이 짙어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마지막
 까지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품위를 지키고 짙어 하
 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환우가 귀한 영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봉사 가기 전날, 환우들이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또 환우분들도 ‘언제 오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제가 안 가면
 환우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능하면 한 주
 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호스피스 봉사의 현장과 전도

사회 : 현장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의 모습을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최옥분 권사 : 제가 가는 서북시립병원은 4인 1실이고, 봉사를 가면 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환우분들이 발 마사지를 좋아하시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저와 몇분은 발 마사지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기독병원은 일반병실과 마지막에 가는 임종실로 나뉩니다. 임종 직전에는 거의 혼수상태가 되시는데 보호자를 위해 대화하고 장례절차도 안내해 드리죠. 믿는 분들에게는 영적지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게 됩니다.

사회 : 환우들과 처음 접촉하실 때, 안 믿는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문경숙 권사 : 친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지저분한 것들도 치우고 청소도 하면서 마음을 느끼도록 행동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나왔는데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그게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옥분 권사 : 봉사를 할 때 종교성을 드러내는 걸 못 하게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전에 시아버님과 대화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직 엄마를 보지는 못 해도 엄

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믿죠. 시아버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관심 있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전도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 환우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식구들까지 전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훈찬 안수집사 : 기독병원이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 때도 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 : 장로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장로 : ‘웰빙’시대에서 이제는 ‘웰 다잉’의 시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 시편 52편 8절에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과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날**

본 좌담회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집

거룩한
공회와
현대 문화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거룩한 공교회와 소그룹 문화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SNS와 신앙 ②

거룩한 공교회와 소그룹 문화

거룩한 공교회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우선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公敎會), 즉 지역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고 보편적, 공동적이라는 것이다. 헬라어로는 카톨리코스인데,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Catholic은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동일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 즉 영락교회는 지역 교회로서, 교단이나 교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것이다. 그렇기에 인종이나 계층 등 그 무엇을 초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다.



김충섭 목사
안양·수원교구
소그룹, 상담부(가정사역)

이 시대 문화의 이해

흔히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문화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미디어와 대중예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문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어 버렸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경에서 문화란?

구약에 ‘문화’라는 용어로 직역되는 단어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 명사 ‘마아세’와 ‘혹코트’가 있다.¹ 레위기 18장 3-4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규례에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레위기 19장 2절의 “거룩하라”라는 기본적 메시지와 상응되는 명령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단순히 율법주의적 배타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 밖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 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한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과 생태계 전체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므로 그러한 구성원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든지 같은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룩성을 잊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1. 김진명, 『문화 목회에 있어서 성서적 모델』, 대한기독교서회, 2017.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제 잠시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참석이 아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며,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머무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올바른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바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이

교회생활을 넘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삶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기쁨을 날마다 누

리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만날**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SNS와 신앙 ②

SNS는 사람 간의 대화를 돋기 위한 장치

아내와 처음 교제를 하던 때입니다. 당시 아내와 저녁 즈음에 통화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이 전화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애틋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SNS를 활용한 문자 서비스였습니다. 기존 문자는 꽤 비쌌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문자 서비스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쓰더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저렴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핸드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로 문자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때로 난처해질 때가 있었는데 서로 다투고 난 다음의 문자였습니다. 서로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혹여나 말의 뉘앙스로 인해 아내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실제로 문자로 이야기하다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난처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제법 있을 줄 압니다. 글에 ‘물결 표시(~)’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글의 분위기



남경열 목사
인천교구
IT미디어부



를 바꾸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면서 문자로 나누는 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는 위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 대화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특히 특수문자나 이모티콘 사용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각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되는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은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패턴을 알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면에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는 이러한 문자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특수문자를 쓰지 않으면 마치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듯이 글의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그렇다고 사용하게 되면 초면에 실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해퍼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 SNS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고 SNS 역시 올바로 사용해야

결국 SNS는 사람 간의 대화를 돋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글로 여러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기에 전달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글은 표현하기에 따라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감정과 호흡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쓰기에 훈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 어떤 내용을 받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환경, 여러 요소 등을 글 쓰는 사람이 고려하지 못 한다면 맥락을 제대로 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내용, 말을 할 때

의 제스처, 호흡, 심지어 침묵까지도 포함하며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 환경적 요소에까지 두루 걸쳐서 전달되는 것이기에 SNS를 통한 소통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SNS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SNS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우리의 삶과 더불어 신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맹신한 나머지 SNS를 통해 비춰지는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풍토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SNS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역할 확대

특히 교역자로서 환우들의 안부를 묻고 급박한 상황에서 전달하는 짧은 문자는 다른 어느 것보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때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SNS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누군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 “네가 있어서 나는 기뻐, 우리 공동체에서 네가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등 짧지만 진심을 담은 문자는 그 영혼의 깊숙한 영역을 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SNS는 포근한 손길이 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볼 수 없는 곳에서 따뜻한 눈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SNS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요소가 아닌, 지혜롭게 개발하며 다듬어야 할 영역입니다. 특별히 SNS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던 5~10년 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내용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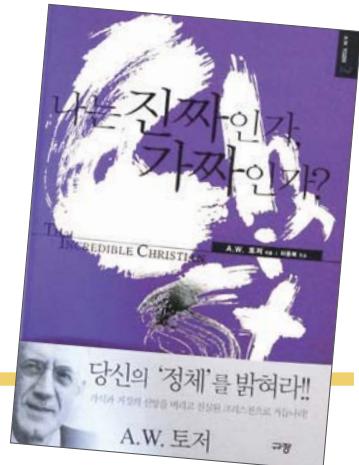
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영상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용량 파일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한 번 보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던 내용물을 이제는 몇 분 안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 여러 내용을 적어서 알리기보다 5분 정도의 영상을 통해 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미디어콘텐츠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결국 기독교 미디어 사역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이미지나 텍스트를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짧지만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짧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신앙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단순한 정리나 보고, 소개 정도의 영역을 뛰어넘어 기독교 감성을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콘텐츠에 녹여서 표현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것이 이 시대 짧은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신앙 선배들은 이들을 독려하며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짧은 세대들은 이러한 선배들의 마음을 읽고 독자적인 길이 아닌 합력의 길을 모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편 가르기가 아닌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건강한 콘텐츠와 이를 활용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남**

지난 달부터 문을 연 '한 권의 북상' 섹션은 「만남」 독자들의 궁금함과 주님 사랑의 열기로 시작되었다. "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회원들이 서로 추천한 도서를 독서하고 토론한다"는 소식을 독자들이 듣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도 함께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는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한 권의 북상' 섹션을 운영한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읽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저자 A.W. 토저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예수 님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잘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다. 1897년 미국에서 태어난 저자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고, 저술가로도 활동했다.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1919년부터 44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사역을 했다. 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고, 회개 없는 그리스도 영접이나 십자가 없는 성공 쳐세술을 전하는 것은 사이비 기독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하게 선포했다.

누가 진짜인가

저자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고난도 개인적 않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빌 2:5)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대속과 성화(롬 7,8장)를 통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신앙의 기본(기도, 믿음, 말씀묵상, 순종, 겸손, 진지한 사색, 성령님의 조명)에 충실히 것을 강조한다. 돈을 실제로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장병건 장로
인천교구
새가족부 부장

누가 가짜인가

그가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여 받는 징계를 십자가 고난으로 착각하며, 이성(理性)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 용서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신조(명문화된 진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죄 또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의로운 충동에 따라야 한다며,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지성과 의지의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완벽한 균형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술한다. 균형 잡힌 성경해석을 위하여 서로 관련 있는 성경본문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권면한다.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의 시편(9:10상)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은혜의 방편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권면한다. 말씀 순종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 행하시도록 함으로써 육신과의 전쟁 및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회 독서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하는 모습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그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영원히 선택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솔직하게 기도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므로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삶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장차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인류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과 같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큰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앙을 비롯한 영적인 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알게 되었다. 교회의 영적지도자인 장로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 이제부터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기도드린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롬 8:29,30)이 있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없다.(롬 6:15)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순종의 길을 인내하며 나아가리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만남**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지난 8월호와 9월호에서 전한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등의 여름수련회 소식에 이어 이번 10월호에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등의 소식을 전한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야곱의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지난 여름수련회 소식을 이달까지 전한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사랑 충전! 세상의 빛으로!

무더운 여름날 저녁,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랑부 선생님이 보낸 여름성경학교 자원봉사자 권유문자였다. 작년에 친구 부탁으로 참여했던 성경학교에서 받은 좋은 느낌이 있어 올해도 가볼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온 문자라 매우 반기웠다. 단지 내가 사랑부 성경학교에 가 있는 동안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아내의 독박육아가 마음에 걸렸다. 다행

히 아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내줬다. 이렇게 시작된 올해 사랑부 성경학교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돌아보면 나에게 평안한 휴식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다.

작년에 한 번 갔던 터라 안면이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달려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멋진 자원봉사자들, 이들이 있어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함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다시 생각하게 됐다. 참고로 학생들은 말이 학생이지 나이가 다양하다. 어린아이부터 나보다 나이가 많은 50대의 어르신까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 4살짜리 내 아들처럼 순수하다는 점이며, 애들처럼 귀여운 고집도 있다.

3일간 양평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에서 진행된 성



박세환 집사
사랑부 자원봉사



사랑부 교사들과 함께



여름수련회 모습



물놀이를 함께하며

경학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솔직히 나는 말이 자원봉사자이지 학생들의 템포에 맞춰 그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겼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으로 준비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성서학습과 물놀이, 세죽식, 조별 연극 그리고 달란트시장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특히 조별 연극이 생각난다. 크게 3조로 나누어 조별 연극 발표를 했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는 회사에서 무슨 행사나 워크숍을 하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랑부에서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말이 조금 느려도, 모두들 행복한 마음으로 연극에 동참했다. 학생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아는 이들로서는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참여를 통해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실수란 없었다. 대사 틀리고 잊어버리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도 이들 연극에는 실수가 아닌 오직 박수와 웃음만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었다. 모두 함께 기뻐하고 웃고 다독여주는 모임, 여기는 영락교회 본관 옆 사랑부이다. 누구에게나 선생님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잔잔히 느껴보고 싶어 문을 여는 순간 학생들이 하이파이브를 요구하며 기쁘게 반겨줄 것이다. **만남**

작품 만드는 사랑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중등부, YDS 러시아·중국 아웃리치 사랑 충전! 세상의 빛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나는 중등부 ‘YDS-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공항 도착 후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전혀 웃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잠시 후 가이드 선생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줄 웃음을 남기기 위해 밖에서는 잘 웃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어색함과 서운한 감정마저 들었던 건 사실이다.

러시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둘째 날의 기억은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다. 둘째 날, 우리 팀은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라 그런지 다소 무뚝뚝한 러시아 어른들과는 다르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반겨 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귀여웠다. 우리도 미리 준비한 ‘스kit드라마’를 보여주고 다 함



서고은
중등부 3학년

께 즐겁게 뛰어 노는 시간을 가졌다. 난 러시아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일을 담당했다. 무엇을 그려줄까 고민하다가, 지난 여름수련회 때 선생님께서 ‘페이스페인팅’으로 꽃을 그려주시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의 손에 꽃을 그려줬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말을 그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는 부엉이, 칼, 총 등 어려운 것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지만 사실 잘 그리지 못해 조금 미안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행복해했다.



중등부가 방문한 러시아 고아원

그날 저녁엔 다 함께 모여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을 썼다. 나는 러시아에서 재미있던 일들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이 웃지 않아 서운했던 것들이 더 기억에 남아 일기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일기의 맨 아래 부분에 깨달은 점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난 사실 깨달은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아무 것도 쓰지 못 했다. 일기를 다 쓰고 난 후에 몇 명의 소감문을 발표했는데 양태길이라는 친구의 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길이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난 짜증나는 일들을 찾아내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 태길이의 일기를 듣고 난 후, 오늘 내 하루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깨달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하루 동안 깨달았던 것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의 중요성과 나도 누군가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반성하면서 하루가 지나갔다.

셋째 날 우리는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은 입국을 위해 심사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철저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으로 들어가니 웬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 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색하던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백두산’을 갔던 것과 ‘압록강’에서 배를 탄 것, 북한으로 가는 빵을 만드는 빵 공장에 갔던 것이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후 중국과 북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 구경을 갔다. 배를 타고 압록강을 지나가면서 강가의 북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다음 일



러시아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 해주는 모습

정으로 우리는 북한으로 공급되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북한의 실제상황에 대해 들었는데, 얼른 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너무도 짧았던 5박 6일의 시간이 지나갔다. 일정은 짧았지만 깨달은 것과 감사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다 함께 모여서 짧게라도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 앞으로 나 혼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갖게 됐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도 더욱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처음에 가기 전에는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아 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의지할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겼다.

무엇보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였다. 친구들과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정말 많이 가까워진 변화와 감사의 시간이었다.

정말 이번 중등부 ‘아웃리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나라가 되면 좋겠다. **만남**

고등부, YES 일본 비전트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드리는 감사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고등부 YES 제자훈련에 참가했던 1학년 김채은입니다. YES는 'Youngnak Evangelical School'의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락고등부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YES 제자훈련을 받으며 느꼈던 것들과 일본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소감을 『만남』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YES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일본으로 비전트립을 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일본문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 전공이 일본과도 얼추 맞았었기 때문입니다.



김채은
고등부 1학년

하지만 마음은 있었어도, 정작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갈 수 없어 벼르고 있던 중, 고등부에서 이번 YES 비전트립을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창 일본에 대해 생각하던 가운데, '이건 하나님 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해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시간이 흐르고, 6주 간의 YES 제자훈련과 1주간의 비전트립 준비모임을 했습니다.

고등부 일본 비전트립 중에



6주간의 제자훈련 과정에서 일본과 일본의 교회, 역사 등을 공부했고, 제가 알았던 일본과는 다른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일찍 들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굉장히 소수라는 것,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일본의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일본에서 소수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장소들과 교회들을 방문하며 6주간의 제자훈련을 통해 배웠던 일본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 비전트립 종반에 이르기까지도 큰 은혜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소수자인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와 같은 사실은 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으나, 정작 제 자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 사카키 영광교회에서의 공연사역도 어지러운 마음으로 마친 후, 사카키 영광교회의 성도인 치에상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치에상은 약 10년 전, 저와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 시절,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예배가 치에상의 기독교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일본 비전트립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인도해주셨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그 감동과 은혜를 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일본 비전트립에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제 머리로,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 6주간의 제자훈련, 1주간의 비전트립 준비모임, 4박 5일간의 일본 비전트립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모두 담지는 못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YES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모든 YESer들,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청년부, 제42차 하기선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주는나무 부서의 김정욱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제42차 하기선교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일어나라’는 주제로 전북 동노회 소속 장수 지역의 6개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과 지교회 전도 사역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교회 사역 중 계북교회 어르신 성경학교 팀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하기선교에 참여하기 전 갑자기 직장을 잃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게 돼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날까?’하는 의문과 분노로 방황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서 조장 황정길 형제의 권유를 통해 내 자신을 한 번 돌아볼 마음으로 하기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7월부터 하기선교를 준비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 기쁨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전한 삶의 문제로 ‘참여를



김정욱
청년부 주는나무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워크숍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하기선교 출발 하루 전, 그동안 어두웠던 집안 문제들을 갑자기 해결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기선교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에서 가장 어리고,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계북교회 팀의 전도사님과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격려가 하기선교를 준비하고 직접 가서 선교를 하는 내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막상 선교를 시작하니 무더운 날씨와 고된 일로 몸은 힘들었지만, 마



하기봉사 중 할머니 할아버지와 성경공부하는 청년들

음과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던지…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순간이라 고백할 은혜의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처음 겪게 된 낯선 경험들, 특히 성경공부 시간에 한글을 모르거나 글을 읽기 힘든 어르신들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며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심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 같은 팀의 허은애 자매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는 너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격려를 들으면서, ‘아,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필요한 곳이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를 미소로 경청하고, 꾸밈없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따뜻한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을 본다”던 김효진 자매의 격려, 이런 많은 격려들은 한편으로 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기선교는 저나 우리 팀원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현신과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로 섬겨주신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 이·미용, 피부마사지, 연장연마, 한방진료, 의료팀, 전도폭발팀, 생활권사님들, 문화선교부, 올드보이즈, 장수 사진 등 온 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현신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면민의 날 행사 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약 250명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공연을 관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하기선교에는 저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방해도 크다는 말처럼 여러 위기들이 각 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낯선 어르신들을 만나고, 섬기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저 귀찮거나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이번 하기선교에는 약 270여 명의 청년과 성도들이 참여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까지 하신 분들도 거의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온 지역 민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만끽했던 자리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던지, 선교를 다녀온 많은 분들에게서 “우리가 전하러 갔지만 실상은 우리가 더 은혜 받았던 자리며, 하늘의 기쁨과 생명으로 채움 받았던 자리였다”는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드렸던 시간들, 복음을 듣고 함께 영접기도를 드리던 어르신들의 모습들, 학교졸업장 한번 받아보지 못 했던 어르신이 성경학교 졸업장을 받고서 뿌듯해하시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들이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자신을 돌봐준 청년에게 인사를 못 했다며 찾아와 공연 끝까지 기다렸다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들, 집에 방문했을 때 없는 살림에도 사랑 담긴 작은 매실음료를 내주시던 모습들, “또 와야 한다!”,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지?”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은 지금도 저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쁘고,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가 이번 청년부 하기선교에 가득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자유인예배부, 여름수련회 에클레시아

2018년 8월 16일(목)~18일(토) 3일
간, 자유인예배부에서는 '에클레시아(벧전

2:9~10)'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위임목사께서 식탁 자리에 함께하셨고 말씀도 전해주셨다. 자유인예배부에 속한 청년부는 하루 먼저 시작하여 청년만의 시간을 가졌고, 장년부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 코너를 직접 꾸몄다.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다움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김운성 위임목사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렘 29: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넘쳤다. 또한 이치만 교수(장신대)의 한국 초기선교사 특강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아동부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마음에 새겼고, 자유인예배부가 더욱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제공 자유인예배부



상담부 제8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

지난 8월 9일(목)~11(토)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설악동 추양하우스와 동해해변 등에서 제8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가 상담부(부장 지동춘 장로) 주최로 있었다. 17가정 70명과 20여 명의 스태프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에는

동해해변에서 힐링과 가족오락관 5개 프로그램(아빠는 슈퍼맨, 몸으로 말해요 등)으로 게임을 즐기며 쉼이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첫째 날 저녁에 '행복한 부부만들기' 부부특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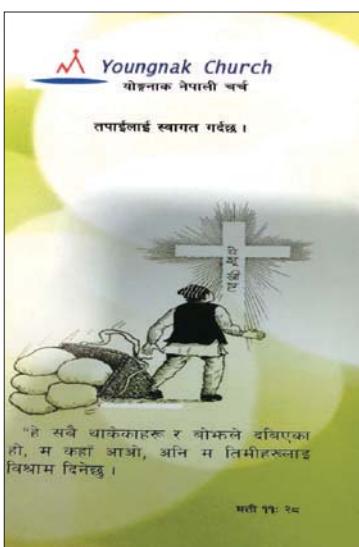
둘째 날 오후 가족 테마놀이로 파인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와 동해해변에서 사진촬영이 있었고, 저녁에 '에너그램' 부부특강 및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다. 믿음 안에서 가족 간의 소통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평소 소홀했던 자녀들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사랑과 이 해로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모두가 만족한, 은혜로운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제공 상담부

세계를 향한 선교, 영락교회 네팔 예배



라이 전도사
선교부 외국인선교 네팔 예배



네팔 예배에서 제공하는 네팔인 전도 팸플릿

1. 네팔 예배(Nepali Worship Service)

영락교회 네팔 예배는 러시아어, 몽골, 중국어 예배부서와 함께 영락교회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의 외국인선교부에 속해 있으며, 지금까지 10년 이상 네팔어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되었습니다. 네팔 예배의 목적은 특별히 직장과 공장,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네팔인들에게 교회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며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네팔 예배는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네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락교회 선교부는 네팔어로 전도 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네팔 예배팀과 협력해 왔습니다. 영락교회 네팔 예배에서는 사역자인 라이 전도사와 김유숙 네팔 예배팀장과 함께 매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전철역에 나가서 오가는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 책자를 배부하며 전도합니다.

또한 영락교회에는 일을 해야 하는 네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할 때까지 쉬고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있어, 이 기간 동안에 네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팔 쉼터는 일자리를 찾는 네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네팔 사람들은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팔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봉사관 501호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도 네팔인에게 선교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영락교회 네팔 예배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팔 연합예배(United Nepalese Fellowship in Yougnak Church)

영락교회 네팔 예배(Yougnak Church, Nepal Fellowship)는 매년 네팔 기독교연합(Nepali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단체를 통해 네팔인 연합예배를 주재합니다. 올해 8월 26일(주일) 오후 2시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604호에서 한국 교회의 네팔인 예배를 위한 친목과 선교 차원에서 안산 제일교회, 군포 장로교회, 구로교회, 주안 장로교회, 창신교회, 구리 화광교회, 희년선 교회로 연합 구성된 네팔인 연합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 행사는 25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락교회가 주관한 행사는 영락교회 선교부와 교육부 관계자 분들, 성찬을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분들과 영락교회 식당을 섬기는 여러 분들의 협조와 기도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총 210명의 네팔 성도들이 참석했고, 이들 중 많은 네팔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은혜 받고 만족함을 느낀 섬김의 예배였습니다. 영락교회 네팔 예배팀(Nepali Fellowship)은 이번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네팔연합예배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3. 복음 전도자 라이(Evangelist Rai)

저는 영락교회 네팔 예배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 라이유브라지(Rai Yub Raj) 전도사입니다. 2013년 중반부터 영락교회에서 네팔 예배를 섬기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M.Div.(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지금은 평택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을 마무리 짓는 2019년 말에는 네팔 카트만두에 개척교회를 세워 목회를 해 나갈 비전을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 연구 후 계획

저는 학업을 마친 후 네팔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국가이며, 새로이 지정된 엄격한 법률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 사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네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깁깝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네팔 예배를 섬기고 사역하며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저의 목회적 관점이 신학적으로 목회 실천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팔연합예배

저는 앞으로 네팔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네팔에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5. 기도제목

-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의 네팔인들이 안전히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도록
-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모여 예배하는 영락교회 네팔 예배가 되도록
- 네팔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라이전도사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네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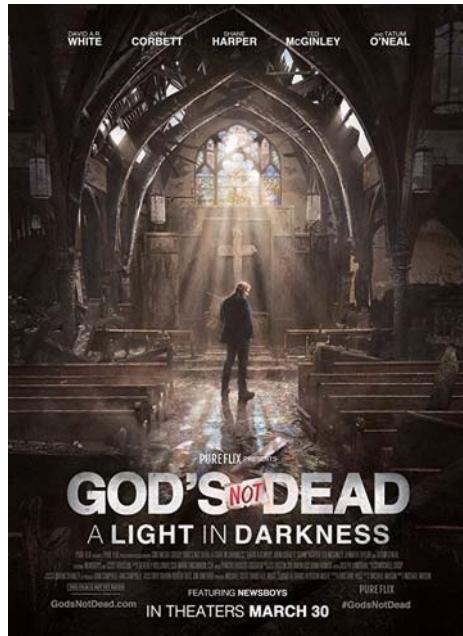
성경적 문화콘텐츠의 전망을 넓히다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과 오늘의 크리스천 영화들

“부서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조각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피자를 먹어버린 형을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먹먹하다가 웃음이 터져 나온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절망하지만, 결론은 분명하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2018, 감독 마이클 레이슨)가 지난 7월 중순 개봉 후 한 달 반 만에 9만 명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다. 소규모 예술영화관 중심으로 상영하는 독립영화라는 점에서 만만찮은 기록이다. 미국의 한 지역 교회를 무대로, 믿음과 사회적 이슈를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위트 넘치게 직조해 낸 이 영화는 오늘을 사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수많은 질문과 묵상할 내용을 던진다. 무도한 폭력과 자극적 성 표현이 넘치는 대중문화의 흥수 속에서 크리스천 대중문화 콘텐츠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망을 넓히는 영화이기도 하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150년간 자리를 지켜온 세인트제임스 교회,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데이비드 힐 목사는 교회에 불이 나 친구를 잃었다. 거기 더해, 대학 당국은 교회 자리에 학생 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던 데이비드 목사는 고통스런 질문



들에 직면한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형, 교회에 불을 낸 청년과 그의 연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지닌 문제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믿음은 어떻게 회복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그 대답을 제시한다.

예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는 주로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대작이었다. 고전 명작이 된 〈십계〉, 〈쿼바디스〉, 〈벤허〉나 1990년대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들이 그렇다. 그러나 최근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2014, 리들리 스코트 감독), 〈노아〉(2014,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처럼 성경 속 인물을 등장시켰을 뿐 인본주의적 해석에 따른 오독이 두드러지거나 특수 효과와 액션 장면을 소비하는 영화로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 영화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전작 〈신은 죽지 않았다〉(2014), 〈신은 죽지 않았다2〉(2016)에 이은 이 시리즈는 평범하고 어디에나 있는,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크리스천을 주인공으로 하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이 시리즈는 학교와 직장, 이웃과의 삶 가운데 청년들이 교회와 믿음, 세상살이에서 겪는 생생한 갈등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영화의 주요 무대가 학교라는 점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이 더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

시리즈 첫 작품인 〈신은 죽지 않았다〉의 무대 역시 대학. 무신론자인 철학교수 래디슨은 수업 첫 시간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신입생 조쉬 혼자 “신은 존재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교수는 조쉬에게 신이 존재함을 증명해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라는 과제를 낸다.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낙제라는 조건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2〉는 〈신은 죽지 않았다〉의 속편 격으로,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출발한다. 사고로 형제를 잃은 여고생 브룩과 브룩의 역사 교사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전편에 나온 인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그레이스는 수업 시간에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설명하던 중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수업 중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 공개사과를 하면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타협안이 제시되지만 그레이스는 설교가 아니라 인용이었을 뿐이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이 사안은 재판에 넘겨진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받기도 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도 한다.



학교와 직장, 이웃, 일상에서 만나는 믿음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 청소년-청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질문으로 큰 호응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를 제작한 퓨어플릭스(<http://pureflixstudio.com>)는 이 시리즈에 데 이비드 힐 목사로 출연하는 데이비드 화이트 등이 함께 설립한 미국의 크리스천 영상 기업이다. “웹상에서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영상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체관람가’ 등급의 영화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취미와 교육, 건강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배급한다.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외에도 〈삼손〉, 〈작은 아씨들〉 같은 영화를 웹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크리스천 영화의 미국 및 세계 배급 뿐 아니라 선교, 훈스쿨링 서비스도 사업 내용에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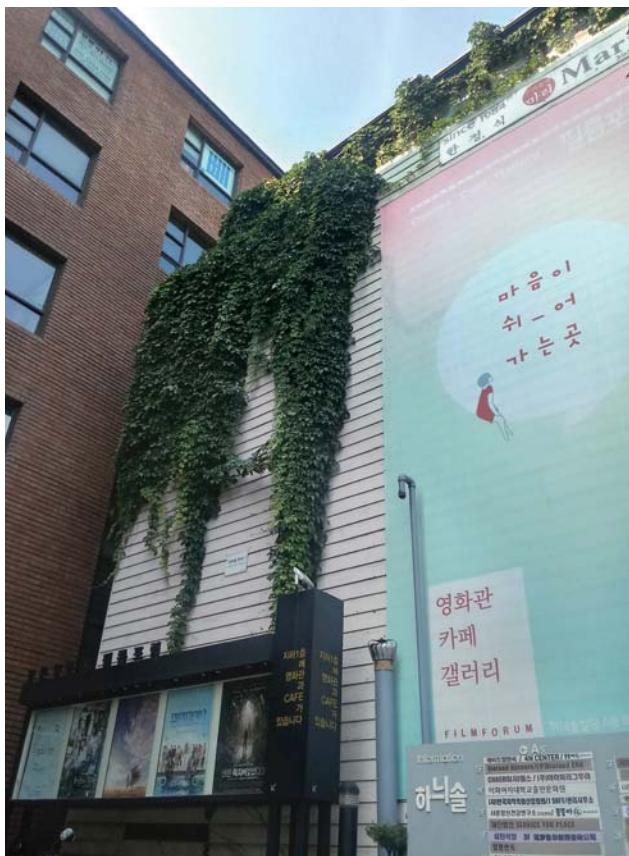
대중문화 가운데에서도 영화는 영상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재현 미디어라는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다른 어떤 대중문화보다 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아 영상 문화를 제작하고 소비하기 위한 실천 움직임이 활발하다. 크리스천 영화와 텔레비전위원회(Christian Film and Television Commission)와 이 단체가 운영하는 무비가이드(www.movieguide.org)가 대표적이다. 무비가이드는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를 기초로 한 등급과 리뷰, 영화 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영화 Top 10’과 주요 시기마다 주제별로 선정하는 톱10이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7년의 톱10 영화로는 1위 애니메이션 〈별(the Star)〉을 비롯,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베이비보스〉, 〈카3〉, 〈스머프: 잃어버린 마을〉 등이 있다.

연중 어느 때나 크리스천 영화 접할 수 있는 공간 「필름포럼」 맞춤상영·영화인과의 대화·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도 가능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이 종종 제작되고 있지만, 크리스천 영화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급하는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 해마다 열리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기독교 영화를 중심에 둔 유일한 영화제. 올해 영화제에서는 신연식 감독의 〈로마서 8:37〉을 기독영화인상 수상작으로 뽑았다.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주키퍼스 와이프〉, 〈채비〉 같은 일반 개봉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이화여대 후문 건너편에 있는 독립영화관 필름포럼(www.filmforum.kr)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2012년 개관 후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연중 무휴로 상영하고 있다. 필름포럼은 또 교회, 강당 등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영화관도 운영하고 있다. 영화 해설 서비스 또는 영화인과의 대화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가 가능한 영화는 〈드롭박스〉, 〈싱 오버 미〉, 〈오두막〉, 〈예수는 역사다〉, 〈사일런스〉, 〈신을 믿습니까?〉, 〈불의 전차〉, 〈나의 산티아고〉 등이 있다. **만남**



독립영화관 필름포럼

취재 박선이 편집위원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10월의 영화
MOVIE

미세스 다웃파이어 (Mrs. Doubtfire, 1993)

7일



감독 : 크리스 콜럼버스

주연 : 로빈 윌리엄스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2시간 5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만화영화 더빙 성우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다니엘은 아이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실직을 거듭하다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도 뺏긴다. 다니엘은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다웃파이어 할머니로 변장하여 자기집에 취직한다. 그는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모습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행복을 되찾는다.



14일

알라바마이야기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 1962)

감독 : 로버트 릴리건 주연 : 그레고리 페

상영시간 : 2시간 2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대공황 이후 암울한 시기, 앨라바마주의 조그만 마을. 백인 처녀 마엘라는 집안 일을 돋는 흑인 청년 톰을 유혹하다 아버지에게 들기고, 화가 난 아버지는 '흑인이 백인 여자를 강간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워 톰을 고소한다. 마을의 존경받는 변호사 애티커스 핀치가 누명을 쓴 톰의 변호를 맡지만 인종적 편견이 만연한 마을에서 그와 자녀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된다.



마틸다 (Matilda, 1996)

21일



감독 : 대니 드비토 주연 : 마라 월슨, 대니 드비토

상영시간 : 1시간 33분 등급 : 전체관람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깜찍하고 총명한 소녀 마틸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가족이 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기꾼 같은 아버지, 돈만 밝히며 허영으로 뜰뜰 뭉친 어머니. 이들은 마틸다의 천재성을 발견하기는커녕 그녀에게 바보 같은 TV를 억지로 보게 하고 읽고 있는 책마저 빼앗아 던져버린다. 마틸다는 책 속의 주인공과 벗하며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우거진 예쁜 집에서 그녀를 타며 사는 꿈을 꾼다.



28일

뷰티풀 차일드 (Beautiful Child, 2013)

감독 : 이성수 주연 : 이성수

상영시간 : 1시간 33분 등급 : 전체관람가

매일 밤 성 마이클 기숙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19세기 후반 캐나다 정부가 실시한 문화 동화 정책에 따라 원주민 자녀들은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신적, 육체적, 성적인 학대가 계속되었다. 원주민들은 기나긴 시간을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야 했다. 폭력의 역사와 갈등의 골을 담대하게 비집고 들어가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 준 한인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의 아픈 이야기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영락기도원을 찾아서

영락기도원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자연의 섭리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곳으로,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쉼터이다. 삼각산이라고도 하는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어, 영락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타 교회 교인들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쉼과 회복의 성산이 되어주고 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영락기도원에 오른 날은 청명한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한껏 가을을 만끽하게 해주었다. 산 기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목사관에 도착하자, 이규정 목사(영락기도원 원목)와 최경식 장로(영락기도원 원장)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본당 아래 폐자재로 만든 작은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왼쪽부터 이규정 목사, 최경식 장로, 박현옥 선임기자

영락기도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규정 목사 : 1950년 영락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기도 처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영락기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故 김치복 장로님께서 기도원 부지를 기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故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뜻을 받들어 기도원을 설립하였는데 “첫째, 온 성도의 영적인 올바른 생활을 양육하고, 둘째,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신앙훈련(‘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에 힘쓰며, 셋째, 기도로 주님과 체험적 단련을 하자.”라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후 1961년 10월 9일에 본당 봉헌을 하게 되었고, 2001년 7월에 본당 및 부대시설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규정 목사 : 건물은 본당과 목사관, 세미나동, 믿음(식당 포함)·소망·사랑관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면서 순례하는 길이 있는데 기도산책(순례)길과 엠마오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등이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적과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훈련 체험의 기도 동산입니다. 또한, 산에는 야외기도처가 있는데 남녀기도처가 구분되어 있으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찾아주고 계십니다.

기도원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최경식 장로 : 영락기도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도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요즘 낮 집회는 150~200여 명 정도



영락기도원 원목 이규정 목사



영락기도원 원장 최경식 장로

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 교인보다 지역주민과 타 교인의 수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 더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집회가 끝나고 본당 뒷문에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8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원 입구 주택가에서 40년이 넘도록 이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기도생활을 할 수 있어 영락교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기도원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규정 목사 :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타 교회 집사님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영접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어 신앙생활을 멀리하던 중 치매를 앓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영락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기도원에 이런 분들도 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를 위해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일주일 후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영락기도원이 복음이 살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써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최경식 장로 :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교회 수칙을 잘 따라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집회가 끝난 후에도 본당 실내에서 통성기도를 하셔서 옆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집회 시에는 뜨겁게 기도를 하되, 집회가 끝나면 본당에서는 묵상기도로, 산 기도처에서는 통성기도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당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경건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락기도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규정 목사 :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처를 영락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또 많은 분들의 영적인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간절한 기도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좋은 자연환경을 통해 몸과 마음도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

최재 박현울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가을밤 하늘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불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가을밤 베다니광장에서 하늘 향해 찬양하는 서울백병원교회 환우들

수요기도회 중인 어느 가을밤, 어둑어둑한 베다니광장에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멜로디가 은은히 흘러 퍼지고 있었다.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은 조금 전 힘든 걸음으로 내 곁을 스쳐 지나갔던 서울백병원 환자복 차림의 여성들이 아니던가. 4인조 찬송 중인 그들은 스스로 지휘까지 하면서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며 다섯번이고 열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같은 병실에 입원한 듯 서로 의지하고 친근한 사이임을 한 눈에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그 훈훈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마침 들고 있던 카메라를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운 좋게도 그중 선곡된 반주 음악을 휴대폰으로 틀어 주신 분이 마침 서울백병원교회(원목 신주현 목사) 송순섭 집사시라, 순조롭게 촬영 허락을 받고 그분들의 더없이 행복한 세상을 공유하며 마음껏 셔터를 눌렀다.

이어지는 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였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는 구절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마음 찡한 느낌이 전해왔다. 피날레 곡은 ‘나의 등 뒤에서’였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휴대폰 찬송가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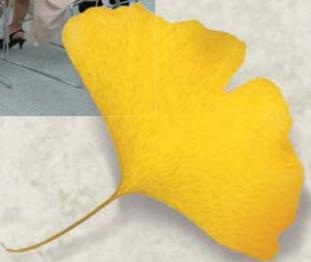


좌측부터 현미 성도, 송순섭 집사, 김영희 성도, 최영숙 성도

춤사위까지 선보이며 신명나게 찬송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찬송을 부르는데 왜 저희를 내일인지 모레인지 데려가려 하십니까!”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평소 그냥 무덤덤하게 들리던 이 찬송가가 오늘은 구구절절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며 눈물샘을 자극하고 목석 같은 내 심금을 울렸다. 그분들의 병명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위중한지 감히 여쭈어 볼 수는 없었지만, 셔터를 누르면서도 평상심이 흔들려서 마음 속으로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백병원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환우들과 보호자들



끝으로 밝은 쪽으로 향해 서시게 한 후 단체 사진을 찍어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씀 드리니, 다행히도 따뜻한 미소 지으며 또 그런 기회가 꼭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분들이 모두 쾌차하길 기도한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영락교회의 뜰과 베다니 광장에서만 아니라 본당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육신은 물론 영적으로도 치유된 밝은 모습으로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꿔본다.

가을밤의 하늘찬양대,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심금을 울렸던 그분들의 찬송이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 댄스 및 메인 보컬 역할을 하신 분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셨다. 노란 노트에 찬송가 가사를 적고 다니는 분도 있었다. 위 사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다. 이날 장비(스트로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두운 조건에서 촬영하여 전반적으로 화질이 좋지 않았다. 혹시 그분들을 다시 뵙게 되면, 그때는 추가 조명을 이용해서 깨끗하고 밝게 찍을 생각이지만, 다시 극적인 장면이 포착될 지는 미지수이다. **만남**

취재·사진 유승현 기자

작은 자의 크신 하나님



최미혜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
송실대학교 초빙교수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고

10대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다양한 꿈을 품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소록도에 수많은 나환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다. 참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들렸고 마침 그때 교회를 다니며 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던 참이라 관심을 가진 분야가 요즘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회사업이었다.

필리핀 단기선교사로 배우며

20대 초 대학에 들어가 대학생 선교단체를 알게 됐다.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받아가면서 또래 친구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기뻤다. 또한 ‘선교한국 88대회’에 참여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대학 졸업 후 선교단체의 간사로 5년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대학생들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 매진했다.

그중 약 2년 동안(1991~1992년)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 단기선교사로 필리핀에 체류했는데, 이때 다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명목상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생각보다 모든 것이 열악했다. 가장 안타까웠던 상황은 수도인 마닐라에도 길거리에서 자고 먹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마닐라의 작은 동네에 살게 됐는데, 외국인이 산다는 소문에 아침마다 여러 아이들이 찾아와 “Mom, one peso, please”를 외치곤 했다. 지금도 그 기억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뭔가를 주면 아이들이 더 오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충실히 지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바나나라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이 든다.

잠깐 멈추어 서서

30대에 선교활동에서 사회복지로 관심이 전환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복지라는 선교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의료선교협회와 국제의료 NGO

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물론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20~30대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고단한 삶이었다.

30대 후반에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좋았다. 그 때 교수님들이 자꾸 진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 앞에서 막연하지만 미국에 가서 학업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1년 동안 유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기적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내 능력으로는 유학을 갈 만한 가능성은 1%도 없었다. 나이 마흔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토플을 몇 개월 만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학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학비를 보면 이내 주눅이 들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 무엇에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셨다. 유학 기간 내내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기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가야 할 학교를 알려주셨고 나는 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와 일부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에서 석사를 했지만, 미국 상황을 고려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이수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박사 합격에 관한 것이다. 약 10개 학교에 지원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면 좀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는 몇 개의 학교에서 합격 연락이 온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박사 지원을 위해서 난 석사기간 동안 특별히 100일을 정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적도, 눈물을 많이 흘린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얼마 후 응시한 학교들로부터 받은 것은 합격 거절의 편지들이었다. 그 해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이런 답신들로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아팠다. 박사학위를 위해 왔는데 거절되니 무척 좌절이 됐다. 그때 내 나이 42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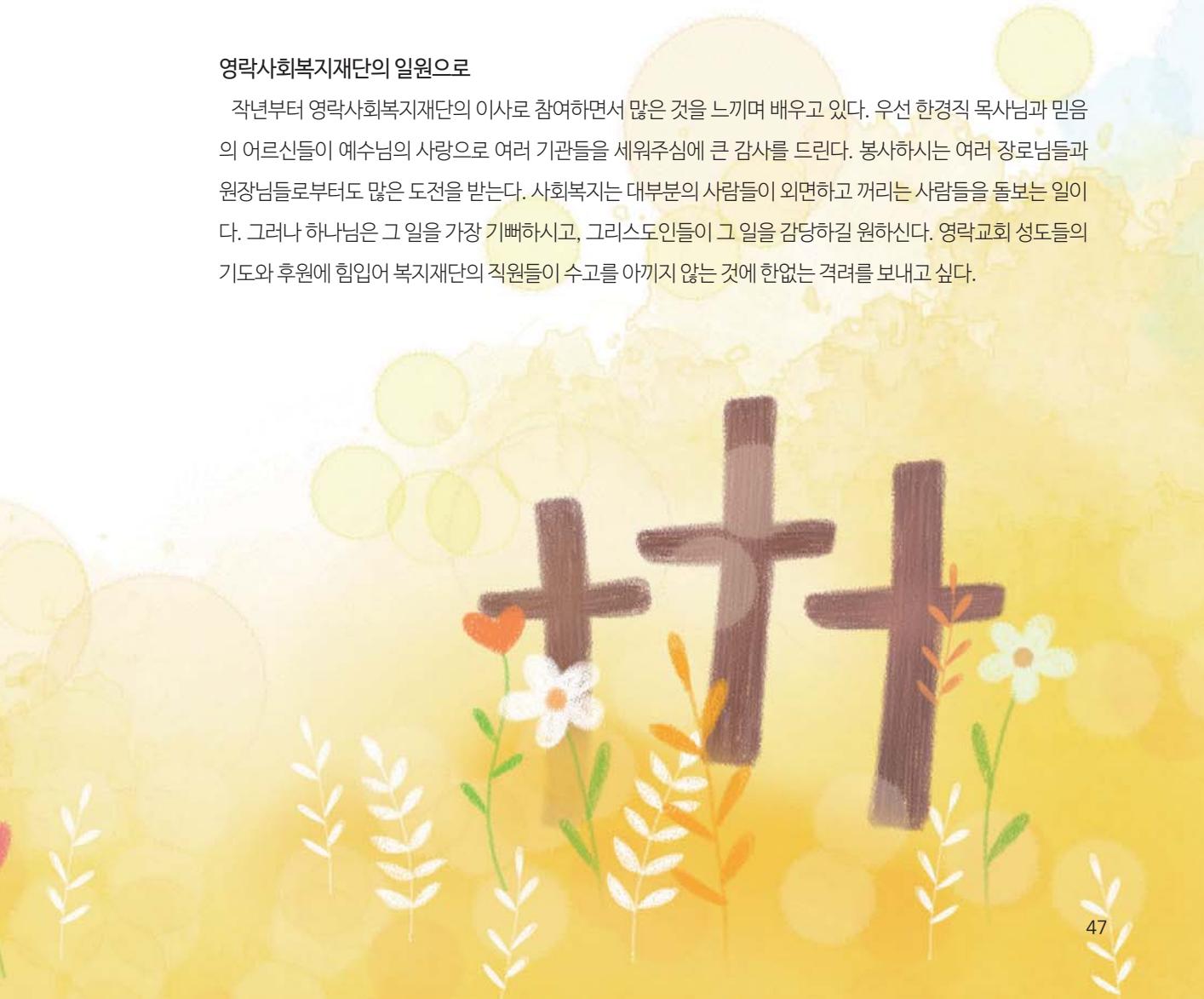
이런 와중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찾아왔다. 3월 말이었는데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4월 2일에 연락이 올 것이라는 정말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원한 학교 중에서 하와이주립대 빼고는 모든 학교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였기에 반신반의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힘들어 멋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조작해내는 것은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내 4월 2일이 됐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메일을 찾았고, 자취하는 집 마당의 우체통을 온종일 수십 번도 더 열어봤다. 내가 착각한 것이라는 생각에 더 우울해졌다. 밤 9시가 다 되어 갑자기 하와이 전화번호가 떴다. 하와이와 본토는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전화는 최종 합격자를 가리기 위한 인터뷰 약속 전화였고, 이후 나는 합격을 했고, 학비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제공 받으면서 박사과정에 가게 됐다. 그 당시 내 재정상태는 제로였다. 나는 이런 일은 아주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다. 이를 통해 주님은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다.

어렵게 또 때로는 감사하게 늦깎이 유학생으로 6년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지금 학생들과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지 성찰하곤 한다. 사실 늘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나는 그런 목표로 매순간 노력하고자 한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일원으로

작년부터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고 있다. 우선 한경직 목사님과 믿음의 어르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심에 큰 감사를 드린다. 봉사하시는 여러 장로님들과 원장님들로부터도 많은 도전을 받는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리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한없는 격려를 보내고 싶다.



이사 직분으로 내가 담당하는 기관은 합실어린이집과 영락어린이집이다. 지난봄에 난곡 지역의 합실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3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다. 대학 3학년 때 난곡 지역을 실습지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방 출신인 나는 서울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소위 달동네였고 쪽방이 쭉 늘어선 너무나 빈곤한 지역이었다. 그때 동행하셨던 교수님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만날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이해해야 해요”라고 하셨다. 지금은 동네가 많이 바뀌었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이 기관을 세우신 혜안에 감사드린다.

나는 잠시 이사직을 감당하느라 영락복지재단과 인연을 맺었지만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개인적으로 북한 동포들과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져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섬김의 손길이 북한에도 곳곳에 닿았으면 한다. 탈북 학생들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사회복지나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한다. 얼마나 캄캄하고 삭막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제2의 보린원, 영락어린이집, 애니아의 집이 거기에도 세워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만들고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고아를 돌보셨던 밥 피어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하나님, 저는 빌리 그레이 엄처럼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OO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만남**



교회소식



개강소식

날짜(기간)	제 목	장 소	문 의
9월 1일	제11기 영락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관 4층	교육부 영락청소년 오케스트라 010-9910-0744
9월 1일 (~12/1)	하반기 전도훈련(토요반)	봉사관 지하예배실	선교부 전도훈련팀 2280-0141, 010-9045-6717
9월 1일 (~10/9)	CebC 5~6학년 대상 YMS선교프로그램	봉사관 304호	CebC 010-4533-7743
9월 2일	신앙아카데미(주일반)		교육부 2280-0131
9월 2일	한마음찬양반	50주년기념관 301호	음악부 2280-0151
9월 4일 (~12/21)	영락기도원 하반기 집회	영락기도원	영락기도원 997-1004
9월 5일	신앙아카데미(수요반)	50주년기념관 503호	교육부 2280-0131
9월 5일	평생대학 2학기	본당	평생대학 2280-0317
9월 7일	금요권찰/연합권찰공부 하반기	본당	목양부 2280-0310
9월 7일	신앙아카데미(성경통독반)	50주년기념관 503호	교육부 2280-0131
9월 8일	유니게학교(2단계)	50주년기념관 2층 유치부실	유치부 2280-0389
9월 8일	열린주말학교 2학기		사랑부 2280-0270
9월 9일	신입교사교육 2학기	선교관 지하2층	교사교육부
9월 11일	영락수련원 하반기 화요예배	영락수련원	영락수련원 (031)743-6537
9월 11일 (~12/11)	하반기 전도훈련(화요반)	50주년기념관 4층	선교부 전도훈련팀 2280-0141, 010-9045-6717
9월 13일	예비리더훈련(LTC) 2학기		청년부 2280-0360
9월 15일 (~10/13)	시부모 장인장모학교	봉사관 405호	상담부 2280-0171, 010-6236-7163
9월 16일 (~11/18)	성경적 재정교육	50주년기념관 709, 710호	교육부 2280-0131
9월 21일	신앙아카데미(성서지리반)	50주년기념관 604호	교육부 2280-0131
9월 29일	유니게학교(3단계)	50주년기념관 2층 찬양대실	유치부 2280-0389
9월 29일	통합주말학교		아동부 2280-0328

교회소식

화목하게 하는 선교, 100년을 향한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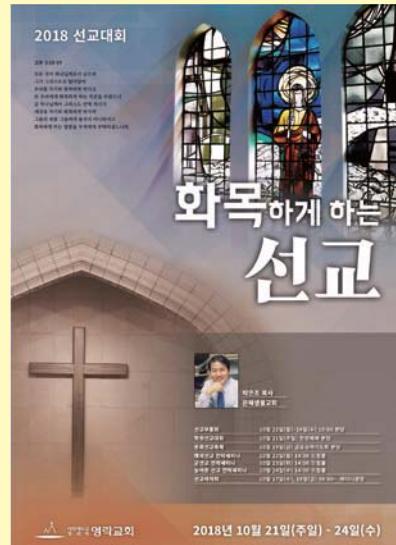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화목하게 하는 선교’라는 주제로 10월 21일(주일)부터 24일(수요일)까지 개최된다.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 주관으로 치러지는 올해 선교대회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워가는 영락선교의 비전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은혜의 축제가 될 것이다.

본격적인 선교대회에 앞서 17일(수)과 19일(금)에 선교 바자회(주관 : 1·2·3·4 여전도회)가 열린다. 바자회의 수익은 국내·외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0월 19일(금) 금요심야기도회에서는 문화선교축제(주관 문화선교부)가 개최된다. 뮤지컬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를 통해 선교사역이 주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10월 21일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교대회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주일 베다니광장에서는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장을 마련한다. 교우들이 후원해 왔던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통해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선교를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교부의 다과와 찬양, 문화선교부의 문화공연, 외국인선교와 학원선교에 대한 흥보가 있을 예정이다. 주일 저녁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형섭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학원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영락의 온 성도들이 학원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0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의 오후 시간에는 드림홀에서 국내와 해외의 분야별 세미나와 특강을 개최 할 예정이다. 해외선교 전략세미나(22일)에서는 앞으로의 해외선교의 전략을 두고 영락교회 선교사들과 전문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10월 21일~24일 개최

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선교 전략세미나(23일), 농어촌 선교 전략세미나(24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모시고 향후의 선교사역 전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의 저녁 시간에는 선교부흥회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은혜샘 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를 모시고 진행될 예정인 선교부흥회를 통해 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을 통해 모금되는 선교현금은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 학사건축에 사용된다. 진승학원을 동남아 학원선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영락 선교 100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18년 선교대회 주요행사 및 일정

날짜	행사	시간	장소
10월 17일(수) 10월 19일(금)	선교 바자회	09:00~	베다니광장
10월 19일(금)	문화선교 축제	금요기도회	본당
10월 21일 (주일)	선교주일예배	1~5부	본당
	선교주일 광장행사 (선교사와의 만남, 문화공연, 외국인선교 홍보, 학원선교 홍보 등)	09:00~16:00	베다니광장
	학원선교 보고대회	17:00 찬양예배	본당
10월 22일(월)~ 10월 24일(수)	선교부흥회	월~수 19:00	본당
10월 22일(월)	해외선교 전략세미나	14:00~17:30	50주년기념관 드림홀
10월 23일(화)	군선교 전략세미나		
10월 24일(수)	농어촌 선교 전략세미나		

제공 선교부

교회소식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이 지난 8월 19일(주일) 저녁부터 24일(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수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쉼과 영성회복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영성수련은 여러 교단으로부터의 많은 관심으로 조기에 마감했고 선착순으로 신청한 30명의 담임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했다. 매일 아침과 점심, 저녁에 걸쳐 세 번의 말씀묵상기도회와 기독교 전통 속의 다양한 예전을 경험하는 저녁 성찬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의 시대적 흐름을 밟아가는 안용성 목사(그루터기 교회 담임)의 성서강의,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성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는 유해룡 목사(모사골교회 담임)의 영성강의, 그리고 목회자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하는 현장 영성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원로)의 목회강의는 5일 동안의 영성 수련의 시간들을 더욱 균형 있고 통일성 있게 연결시키도록 하는 영적 유익함이 있었다.

1.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5일간 영성수련을 마치고

"지치고 고단한 목회적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깊은 하나님 됨.
함께하심을 누립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말도 좋지만 말 없음 속에서 주는 교훈은 그 깊이가 더 깊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전 경험을 통해 타성에 젖어 감동이 없는 예배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마치 주님이
저를 섬겨 주신다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5일간의 영성수련 내용

첫째 날: 강의 및 되새김과 나눔

하루 두 번의 강의(성서/영성/목회)를 통해 새로운 배움이 주어진다. 되새김(강의를 훌로 곱씹는 시간)과 나눔(함께 모여 되새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들은 것을 내면으로 심화한다.

둘째 날: 침묵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한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품을 깊이 맛볼 수 있다.





Day3



Day4



Day5

셋째 날: 예배와 성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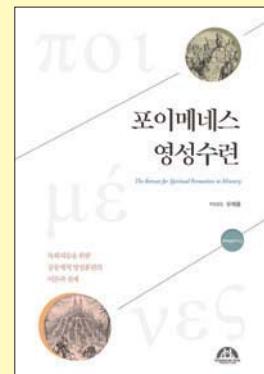
하루 한 번 예배와 성찬을 나눈다. 일별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전통의 예전과 예전장식을 통해 풍성한 예배와 성찬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날: 말씀묵상기도

하루 세 번(아침, 정오, 저녁) 함께 모여 말씀묵상기도를 드린다. 아침과 저녁에는 일별 주제에 맞는 복음서나 서신서의 본문으로 기도한다. 정오에는 시편을 교송하고 중보기도를 올린다.

다섯째 날: 벗들의 모임

하루 한 번 소그룹별로 모여 기도를 나누는 소그룹영적지도의 시간이 있다. 훈련된 영성전문가와 함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이다.



3. 『포이메네스 영성수련』 책자 출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간신을 돋고 목회력 증진을 위한 영성수련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영성수련을 전문적으로 기획해서 시작해 왔던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가 금년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됐고, 이번 5일간 영성수련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 『포이메네스 영성수련-목회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가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를 통해 8월에 출간됐다. 포이메네스 영성아카데미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10명 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전문위원장인 유해룡 목사가 책임편집을 맡았다. 전체 2장으로 구성된 자료집은 1장 '신학' 편에서는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의 토대가 되는 영성, 예배, 교회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들을 다루고, 2장 '수련' 편에서는 실제 5일 동안의 영성수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자료집 출간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불어서 목회자 영성수련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제공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가을의 시작, 9월 첫 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드리다



9월 첫 토요일 본당에서 영락교회 전 가족들이 신앙의 성숙과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을 초대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민수기 31장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나팔(기도)을 불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초대하는 삶을 통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영광을 올려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쁨의 식사를 함께 하며 교육부의 어린 자녀들과 영락가족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9월을 시작하였다.

새벽을 깨웁시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10월 6일(토) | 11월 3일(토) | 12월 1일(토)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권사회 주관으로 5일간 열려



권사회(회장 장경자 권사)가 주관한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가 지난 8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통독과정은 신·구약의 역사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성경 속 이야기들에 쉽게 접근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엄마와 함께 참석한 초등부 학생은 “교회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에 대해 다시 듣게 되어 반가웠다.”고 소감을 전했고, 어느 노부부는 “휴대폰이 방전되면 충전하듯이 5년째 이 자리에 온다.”면서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며 기쁨을 전했다.

권사회는 참석한 190여 명의 성도들에게 기념품과 풍성한 간식을 제공해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취재 박현우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세례식 주관



8월 25일(토) 논산육군훈련소의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31차 장병세례예식을 통해 훈련병 3,20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진중세례식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 및 관계자 190여 명이 참여하여 세례예식을 담당했다.

1부 예배는 김택조 목사(중령, 연무대 군인교회 담임)의 인도와 김운성 위임목사의 “빛의 갑옷을 입어라(롬13:11~14)”라는 말씀으로 드렸졌다. 이어 이재규 장로의 축사, 장병들에게 전하는 기념품 증정, 육군훈련소장의 기념액자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세례식은 목사, 장로, 군목 등 세례 위원들이 참여하여 집례했다. 여전도회원들은 세례를 마친 장병들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안아주며 한 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임을 인지시키며 참 믿음으로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을 격려했다.

진중세례식이 실시 된 연무관에 들어서는 순간 가득 메운 새벽이슬 같은 장병이 ‘실로암’ 복음성가를 목청껏 외치며 뿜어내는 대단한 열기는 황금어장의 현장으로 실로 감동적이었다.

취재 김성현 장로 사진 박상수 객원기자

김운성 위임목사, 국군중앙교회 연합조찬예배에서 말씀 전하다



지난 8월 1일 영락교회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가 주관하는 국군중앙교회 연합조찬예배에 참석했다. KMCF 회장인 합참의장 정경두 공군대장이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린 것이다.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분명한 소신을 밝혔던 것처럼 국방을 책임진 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임무에 임해야 할 것임을 전했다. 지난해 영락교회가 오산공군기지 교회를 찾아가 현당 감사예배를 드렸을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현 KMCF 수석부회장인 합참작전지원본부장 원인철 중장도 함께했다.

전시 지휘관들을 위한 기도 후원 필요성을 느껴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가 주선한 이번 예배에서 여전도회연합찬양대(대장 박순자 권사)가 찬양을 담당했고, 많은 영락교회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제공 선교부 사진 설경문 집사



제2남선교회 지회의 날 및 9월 해외선교 홍보



2018 제2남선교회 지회의 날이 8월 26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9월 4일 화요기도회 개강을 앞두고 지회원 간의 반기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히 2018 제2남선교회 베트남 해외선교를 홍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8 제2남선교회 해외선교

주제: 베트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자: 9월 25일(화)~9월 30일(주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

사역: 교회건축, 우물사역, 미전도가정방문사역,
기독원 부지 별목, 전도사역

2남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각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며 지회찬양대의 특송,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선교지, 가정을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갖고 있다.

제공 제2남선교회

제3여전도회 신앙수련회 '중년기의 영적 발돋움-리듬맞추기'



'2018 제3여전도회 신앙수련회'가 지난 8월 28일(화) 드림홀에서 있었다. '중년기의 영적 발돋움-리듬 맞추기(전도서 3:1~15)'라는 주제로 유재경 목사(대전 대덕교회)가 강의했다.

1,2부로 나눠진 강의에서 중년기의 명과 암, 내면적 증상과 처방, 처방의 결과-증상의 악화를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해결원리로 리듬맞추기, 즉 하나님의 크고 작은 리듬속에서, 아이가 아빠의 발 무등을 타고 춤을 추듯, 우리도 하나님의 발 무등을 타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1,2부 강의를 마치고 160여 명의 3여전도회원 모두 한 사람씩 앞에 나가 성찬을 나누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제공 제3여전도회

사랑부 창립 20주년 기념 연극 공연 봉어빵의 비밀

날짜: 10월 20일(토) 오후 4시

장소: 베다니홀



상담부 공개강좌, ‘생각 중독을 완치하라’ 주제로 열려



8월 26일 3부예배를 마친 후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생각 중독을 완치하라’라는 제목으로 상담부 공개강좌가 있었다. 강의를 맡은 유태우 박사는 ‘관계의 병, 마음의 병 완치훈련’에 대해 강의를 했다. 유태우 박사는 이상적인 노화 모델로 ‘9988234’를 제시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사이에 병 없이 죽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 비해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

강에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현대의 병은 생각의 병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또는 나와 타인을 동일시할 때 ‘생각의 병’이 발생한다. 유태우 박사는 생각의 병(관계의 병)을 부부/자녀/고부/친구 관계로 나누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을 마치면서 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 사이트 ‘닥터 U와 함께(<http://www.doctoru.kr/>)’를 알려주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의 병을 치유하고 ‘9988234’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취재 목진경 기자

2018 ‘북적북적’ 독서감상문 공모전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

참가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일반(대학·청년, 장년)

참가방법 지정도서 가운데 택1



지정도서		제출형식
청소년	• 청진기(곽상학 / 두란노) • 심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라 (김경덕 / 사랑플러스)	(공통) •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레너드 스윗 / 예수전도단)
	• 뉴 리바이벌 (이창호 / 예수전도단)	• 분량: A4 1~2매 • 글자: 신명조, 11포트

접수방법 전자우편(clibmi@nate.com) 또는 직접제출(도서관 3층 데스크)

파일명: ‘성명_도서명’, 소속 학교(반, 이름, 연락처) 기재

중·고등학생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정도서 무료 배부(반드시 독서감상문 제출해야 함)

응모기간 10월 1일(월)~10월 31일(수)

참가문의 02.2280.0293(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김운성 위임목사 CTS기독교TV 두란노 성경교실 강의



김운성 위임목사의 '안방에서 배우는 성경 CTS기독교TV 두란노 성경교실 요한 1서 강해'가 16주 동안 아래 일정으로 방송된다.

방송 가족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돋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며 2018년 여름 ‘두란노 성경교실 시즌7’을 맞아 김운성 위임목사를 새롭게 CTS방송국 강사로 초빙하여 방송 녹화한다.

① 프로그램제목 : “CTS 두란노 성경교실”

② 방송시간: (본방) 매주 화요일 08:30~09:20
(재방) 매주 수요일 15:40~16:30

※ 본방은 8월 7일(재방 8월 8일)부터 16주간 방송

제공 선교부 사진 CTS기독교TV

‘예수님과 동행’을 주제로 11회 영락미술인협회 정기전 열려



영락미술인협회는 2018년 9월5일부터 10일까지
인사동 신상갤러리에서 11회 영락미술인협회 정기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를 위한 예배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라는 제하의 설교말씀과 정천우 선교부장로님의 축사가 있었고, 교회의 여러 장로님과 70여 명의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11번째 이어온 금번 전시는 역대 가장 많은 39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각 회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을 전시했다.

제공 영락미술인협회

2018 사역자 박람회, 개최 예정

일시 : 10월 7일, 14일 주일 (2주간)
장소 : 각 예배실 및 베다니 광장

10월 7일(주일)과 14일(주일)에 열리게 될 2018 사역자 박람회를 통해 교우분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 내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의 봉사에 몸담은 교회의 각 지체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각 부서의 사역을 연2주간 각 예배실 및 베다니 광장 부스에서 관심 있는 교우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봉사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공 사역자박람회진행팀



새벽기도회 설교 영상 제공 안내

영락교회 IT미디어부(부장 서상현 장로)에서는 7월 8일(주일)부터 새벽기도회 설교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은 당일 오전 7시부터 제공되며, '영락교회 홈페이지-설교/집회-설교영상-새벽기도회'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 사이트 주소

<http://www.youngnak.net/vod/preachment/early-morning/>



박인재 은퇴장로, 향년 90세로 별세



박인재 은퇴장로가 지난 9월 2일(주일) 오후 2시 조금 지나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 했다. 1928년 경기도 개성시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5년 영남대학교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75년 (주)도원을 설립하여 여러 발명특허를 내고 일본 지사 및 미국 지사와 중국 공장 등으로 확장하는 등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했으며, 교회에서는 1980년~1998년까지 장로로 시무하면서 1982년~1984년 영락농아인교회 운영위원장, 1983년 심방부 부장, 1984년~1987년 (재)영락교회 유지재단 이사, 1997년~1998년 목양부 부장, 1997년~1998년 50주년기념사업회 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일어성경반, 외국인안내부, 교통안내부, 기독교실업인회(CBMC), 한일선교협의회 등을 설립하였다. “교회의 치리 면에서 신앙적 규범을 중하게 여겼으며 책임감이 강하여 50주년기념사업의 중책을 맡았을 때도 많은 수고와 열정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후배 장로님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영락교인의 긍지와 자랑이었다”고 김규홍 은퇴장로는 조사(弔辭)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2018년 9월 5일(수)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드려진 고인의 장례예식에서 집례를 맡은 김운성 목사는 ‘막벨라 굴의 사람들(창 49:29~3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하관예식에서 집례를 맡은 박성은 목사는 ‘영생을 주셨으니(계 3:16, 17: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이름	교구	구역
박규진	17	034
박재하	05	046
유소율	13	023
김주원	04	071
오준서	02	071
류가경	06	065
구본이	14	044
김태리	04	098
강태오	04	016
이도현	08	027
함태양	03	020
홍유민	10	016

유아세례일(9월 2일)



이름	교구	구역
이재인	02	034
조재인	05	046
장윤호	07	047
김서영	04	079
김온	13	024
이고은	17	000
김의겸	07	022
조윤하	07	060
조서환	07	060
이도윤	14	038
양주원	08	036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8월 11일	김서영	04	079
8월 12일	서임철	07	000
	김영준	17	030
	유군자	07	000
	강현모	05	005

등록일(8월 11일~9월 2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8월 12일	김옥빈	05	005
	강현자	11	002
	정영달	04	000
	이명복	06	000
	김연희	02	015



새가족 환영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8월 12일	이교철	14	000
	윤의빈	08	062
	김현주	14	000
	심바하	09	010
	김온	13	024
	이고은	17	000
8월 19일	김시춘	07	029
	이지연	06	061
	정영숙	12	039
	윤효영	10	059
	노지은	06	045
	한명성	04	065
	김훈정	08	025
	김혜영	08	025
	박상준	04	057
	강지현	03	031
	강지영	07	000
	지연진	05	052
	배경환	10	000
	허윤경	10	016
8월 26일	박정환	08	036
	우성진	16	036
	정승국	09	053
	김명화	05	041
	박혜윤	18	030
	임지안	04	022
	조윤하	07	060
	조서환	07	060
	이도윤	14	038
	김재이	06	037
	양주원	08	036
	김의겸	07	022
	손다온	04	014
	Jean-Louis Auguste Bechade	77	077
	Charles Pierre Bechade	77	077
8월 30일	하상춘	18	000
	황현자	18	000
	이후남	01	000
	이용택	04	014
	김희진	16	000
	장현석	16	000
	원종임	04	014
	박경빈	03	000
	김찬홍	05	005
	이초애	04	065
	김인우	08	000
	이성빈	08	000
	장민규	05	000
	9월 2일		



영락역사자료

8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한진유 은퇴장로	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경직 목사 추모 자료집 외 내부간행물 1건- 한경직 목사의 사상과 사역 외 외부단행본 9건-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기념품 1건- 한국교회사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한경직목사 특별세미나 관련 문서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작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10月

5일(금)	연합권찰공부
7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14일(주일)	고등부·대학부예배 성찬, 젊은이·자유인예배 성찬, 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15일(월)~20일(토)	특별새벽기도회
21일(주일)	선교주일
22일(월)~24일(수)	선교부총회
28일(주일)	종교개혁기념주일, 아동부 찬양제 리틀스타, 사회봉사주일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사람들은 잔잔한 풍경 속에 조용히 서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그러나 십자가나 성경책이 오브제로 등

장하여야만 기독미술은 아니며 소소한 일상과 감사의 기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예배이며 예술작품이 된다. 지금은 병상에서 투병하시며 볶을 접었으나 영락 초기 성도로 영락교회를 아끼는 고을한집사의 그림으로 80년대 초 백운대가 보이는 마을 한켠에 교회가 있는 풍경이다. 폐가 안 좋은 자녀를 위해 영락기도원이 보이고 공기가 좋은 수유리의 쌍문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곳에 사시는 동안 자녀가 건강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당시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것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유리의 옛 마을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으셨다고 한다. 왼편의 작은 교회(영광교회) 뒤쪽이 영락기도원이다.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감사의 기록인 셈이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좋은 감사의 기록을 더 많이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말씀’과 ‘말씀’ 사이에 포개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말씀’에 젖어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흘러넘치며, ‘말씀’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실한 삶과 겸손한 모습을 말입니다. 이달에는 ‘기독호스피스인들의 이야기’를 좌담회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몇 분의 영상제작 전문가분들을 객원기자로 모셔서 협업했습니다.

올해 「만남」을 편집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분업’과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 교제, 봉사라는 4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마다 전담하는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분업을 통한 다양성’과 ‘협업을 통한 통일성’을 「만남」 안에서 구현하고, 결국 몸된 교회의 ‘소통’을 위해 우리 편집위원들이 취재하고 편집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오로지 주의 말씀, 곧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는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적지 않은 청년 편집위원들이 이러한 분업과 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 의견

- 교육부 여름수련회 소식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혜경 권사(서대문·은평교구)
- 고재길 교수님의 예수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신앙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석인 권사(성남·분당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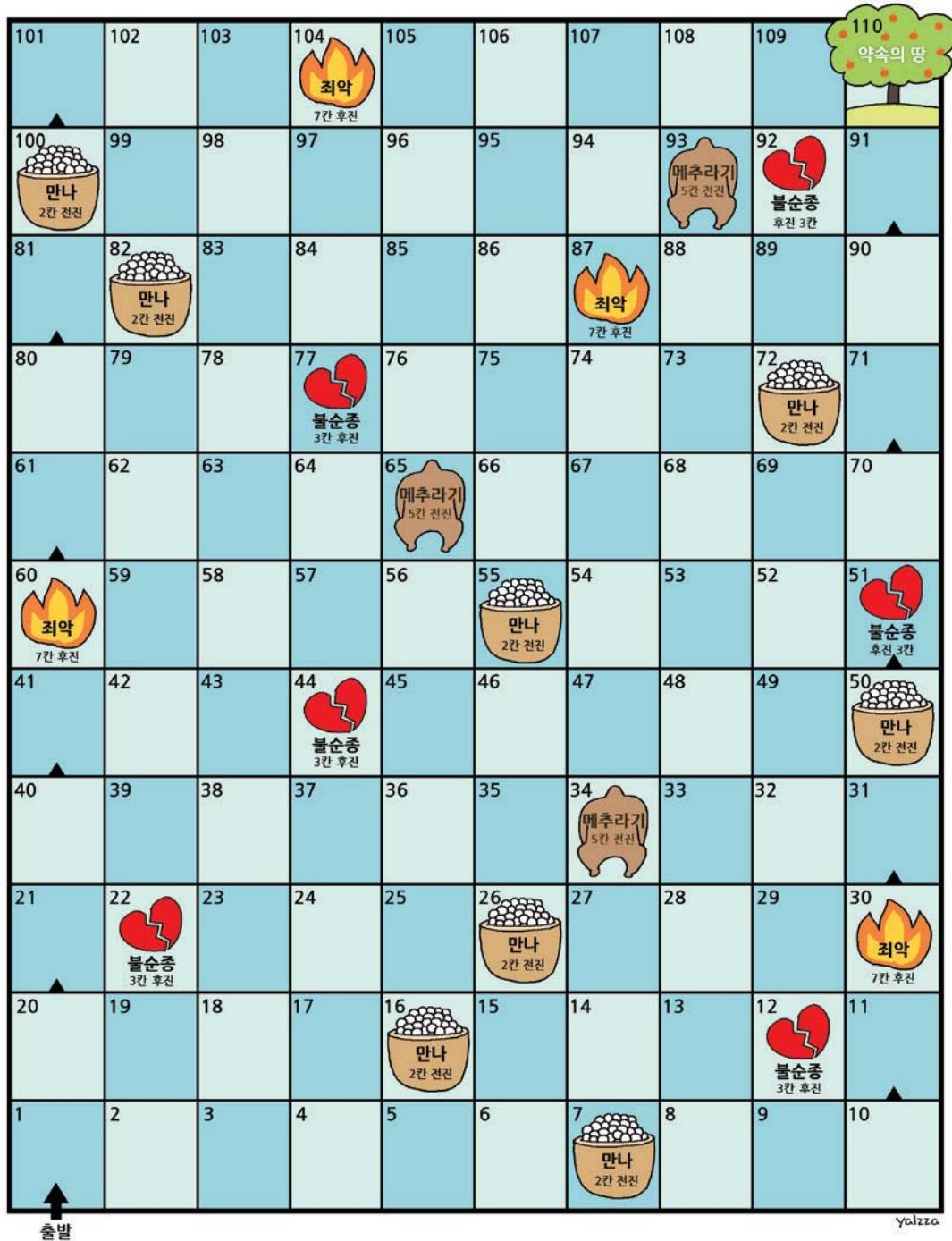
▶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주사위 게임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순종과 죄악에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이동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봅시다~!!^~



yalizza

화보 2018 진중세례식 이모저모



국군 장병들, “빛의 갑옷을 입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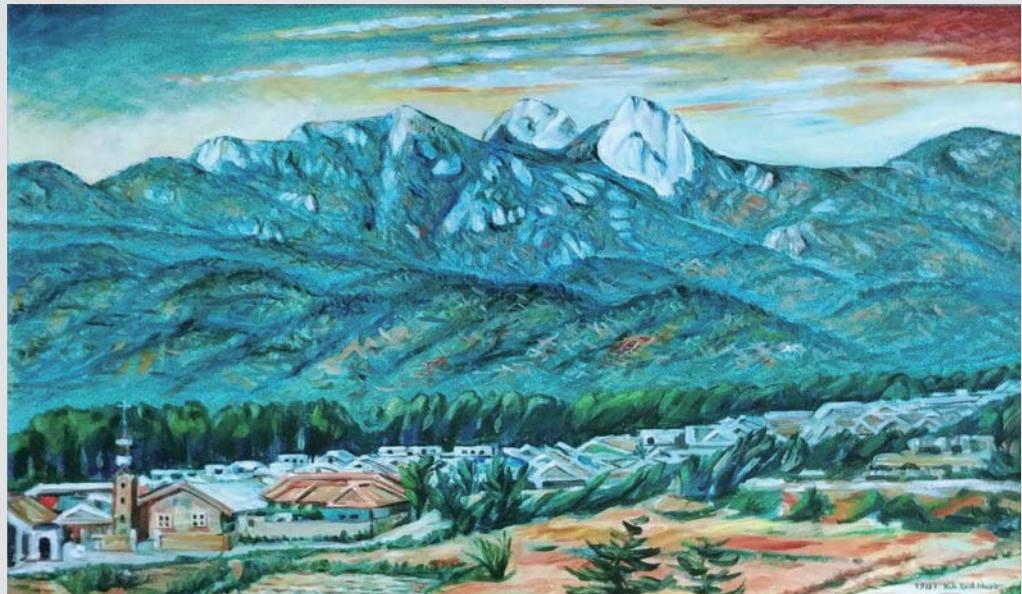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고을한 집사(서초교구), 캔버스에 유채, 160×130cm, 1981

기도원이 있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1)